

조선후기 제주거주 몽골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호적중초에 보이는 본관명 ‘大元’ 가문의 사례분석—

김동전**

목 차

1. 머리말
2. 제주지역 「大元」 본관의 역사적 배경
3. 「大元」본관 家門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4. 맺음말

[초록]

제주도는 1273년(원종 14)부터 1374년(공민왕 23)까지 100여 년 간 몽골의 직·간접적인 통치를 받았다. 이 시기에 몽골의 일부 사람들이 통치자(제주를 다스리는 사람), 군인, 목호(말을 키우는 사람), 유배인의 신분으로 제주에 정착하였다. 제주에 건너온 그들의 후손들은 본관을 「大元」이라 칭하였다. 제주읍지류에서는 趙·李·石·肖·姜·鄭·張·宋·周·秦 등 10개 姓 외에 康·佐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조선후기 제주지역 호적중초에서는 車·洪·徐씨가 추가로 나타났다. 19세기 중반 전후의 호적자료에는 대원 본관으로 姜씨와 佐씨가 강하게 남고 있었다. 어쨌든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점차 ‘대원’ 본관은 사라지지만, 일부의 성씨는 19세기 후반까지 ‘대원’ 본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문 분석을 통해서 볼 때, ‘대원’ 본관을 지속해 가는 가문의 경우에 校奴, 番漢, 牙兵, 募軍, 果直, 群頭, 席匠 등의 職役을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사회적 지위 상승은 쉽지 않았다. 다만 대원 본관들 가운데 일부의 가문은 ‘大元姜氏’에서 ‘晉州姜氏’로 본관을 바꾸는 등 ‘대원’ 본관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제주사회에 마지막 남아 있던 대원 본관 가문들이 19세기 제주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삶의 한 방식이었다.

주제어 : 제주, 몽골, 대원, 본관, 호적중초, 가문, 대원강씨, 진주강씨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분야-A00044).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머리말

13세기 후반 몽골의 세조는 남송과 일본 정벌의 전략적 요충지로 탐라를 주목하였다. 그리고 고려의 개경환도로 대몽항쟁을 전개하던 삼별초의 제주입도는 몽골과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었다. 1273년(원종 14) 여몽연합군은 삼별초 토벌을 단행하였고, 그 후 제주사회는 몽골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였다. 몽골은 제주를 남송과 일본 정벌의 전초기지로 삼았으며, 나아가 목마장을 설치하여 몽골의 14개 목장 중의 하나로 육성하여 나갔다. 그후 약 100여 년 간 제주는 몽골과 고려의 양국에 이중 귀속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제주가 몽골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자, 몽골은 제주 지배를 위해 官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제주 관할을 위해 達魯花赤으로 손탄(遜攤)·탑랄적(塔刺赤)·탑랄아(塔刺兒)·아살(阿撒)·노열리타(奴列你他) 등을 파견하였다.¹⁾ 또한 鎮守軍이란 명목으로 몽골 군인들이 1,400여 명 이상 제주에 주둔하였고, 나아가 몽골은 죄수 뿐만 아니라, 왕족이나 관료 등을 제주에 유배시켰다. 한편, 1276년(충렬왕 2) 원의 제주목마장 설치에 마필사육을 직접 담당하는 목호들을 제주에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²⁾ 1369년(공민왕 18) 이후에 급속도로 세력이 약화된 몽골은 피난궁전을 건립하기 위하여 몽골의 목수들을 제주에 파견하였다.³⁾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몽골 후손들이 제주에 들어와 정착하였고, 명 태조가 ‘탐라에는 胡人(몽골인)을 지칭함의 부락이 있다’⁴⁾라 한 바와

1) 고창석, 2007, 『제주역사연구』, 도서출판 세림, 68쪽; 고창석, 1988, “『원고려기』 탐라관 계기사의 검토”, 『경북사학』 21, 경북사학회; 이강한, 2007 『13~14세기 고려·원 교역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일우, 2003, 『고려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제15호 참조.

2) 고창석, 1985, 「원·명 교체기의 제주도 : 목호난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4.

3) 『고려사』 공민왕 18년 9월 신유.

4) 『明實錄』 홍무 5년(공민왕 21, 1372) 7월 경오 참조.

같이, 수많은 몽골인들이 제주에 거주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제주에 들어와 살게 된 흔적이 조선후기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호적중초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다. 즉, 제주 지역 호적중초에 本貫名으로 ‘大元’을 칭하고 있는 姓氏로 어떠한 가문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들 가문의 본관명이 ‘大元’에서 어떤 본관명으로 변화하였는가? 그리고 당시 그들의 사회적 위상을 호적중초에 나타난 대원본관 가문의 직역변동 등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⁵⁾

2. 제주지역 「大元」 본관의 역사적 배경

1) 제주와 몽골과의 관계

제주도 역사에서 제주와 원과의 관계는 다른 어느 지역의 대외관계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1273년(원종 14)부터 1374년(공민왕 23)까지 100여 년 간 원의 직·간접적인 관할 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지역의 관계는 몽골의 문화가 제주에 수용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제주도 문화는 언어·민속·불교·목장 등 많은 분야에 몽골의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

제주가 원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원 세조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원 세조는 남송과 일본을 경략하기 위해서는 그 해상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탐라제주의 옛 명칭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결국 탐라는 원 세조의 강요에 의해 1267년(원종 8) 1월 17일에 탐라국 지배세력의 대표적인 屋主 일행이 원에 공식적으로 入朝하였

5) 제주지역 호적중초에 대해서는 김동진, 2004, 『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기초적 연구』, 『역사민속학』 19, 한국역사민속학회; 김동진, 2005, 『조선후기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실태와 그 성격』, 『역사민속학』 20, 한국역사민속학회 참조.

다.⁶⁾ 고려에 도착한 성주 일행이 玄錫의 인도로 고려를 출발한 것이 1266년(원종 7) 12월 6일이며, 몽골에 도착한 것은 그 다음해 정월 17일이었다. 탐라 성주가 몽골에 입조하게 된 배경은 세조가 고려를 신하의 나라로 복속시키고 탐라가 남송과 일본의 요충지로 주목하였기 때문이다.⁷⁾ 즉, 몽골의 세조는 남송과 일본에 대한 전략상의 요충으로서 탐라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탐라로 하여금 몽골에 입조하도록 고려를 통해 중용하였다.⁸⁾ 그 후 원은 1268년(원종 9)과 1269년(원종 10) 두 차례 사신을 고려에 파견하여 군사와 병선 및 탐라 지역 등의 海路를 탐문하였다.⁹⁾

그러나 진도에서 항쟁하던 삼별초가 1270년(원종 11) 10월경에 제주에 들어와 대몽항쟁을 전개하게 되자, 원 세조는 1273년(원종 14) 여·몽연합군을 결성하여 토벌을 감행하였다. 그 후 제주는 100여 년 간, 원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제주에서 항쟁하던 삼별초의 잔존세력은 일본 오키나와 지역으로 건너갔음이 오키나와 출토의 ‘계유년’명의 고려계 기와에서 확인된다.¹⁰⁾ 어쨌든 제주가 몽골의 영향 하에 놓이면서 몽골에서 많은 사람이 제주로 이주해서 정착하였는데, 그들은 본관을 ‘大元’이라 칭하였다. 이들이 제주로 건너가 정착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은 제주를 통치하기 위하여 耽羅國招討司 → 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 → 軍民安撫使 → 耽羅總管府 → 軍民萬戶府 등의 官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鎭守軍이란 명목 하에 몽골군의 일부를 제주도에 주둔시

6)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 7년(1266) 11월 병진일; 12월 갑자일.

7) 『원사』 탐라전.

8) 고창석, 2007 『탐라국시대사』, 서귀포문화원, 77쪽.

9) 『고려사』 원종 9년(1268) 10월 경인; 『원고려기사』 탐라, 세조 지원 6년(고려 원종 10, 1269) 7월 5일.

10) 池田榮史, 1999 『물질문화상으로 본 한국제주도와 유구열도의 교류』, 『탐라문화』 1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윤용혁, 2009 『오키나와 출토의 고려 기와와 삼별초』, 『한국사연구』 147, 한국사연구회, 159~197쪽.

켰다. 이 과정에서 達魯花赤 등 통치자와 몽골군인으로 제주에 건너와 정착하였다. 둘째, 몽골이 1276년(충렬왕 2) 제주에 목마장을 설치하면서 마필사육 전문가인 牧胡(牧子라고도 칭함)를 파견하였다. 이들의 상당수는 몽골이 멸망한 후에도 제주에 남아 정착하면서 목마를 관리하였다.

셋째, 몽골은 원의 죄인 뿐만 아니라, 魏王 阿木哥 등 왕족까지 제주에 유배시켰다. 제주도가 유배지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원을 멸망시킨 명은 1382년 雲南 梁王의 아들과 威順王의 아들 伯伯과 그의 가족들을 제주에 유배시켰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연유로 제주에 유배당한 몽골인들이 정착하였다. 넷째, 명이 제주를 元室家族의 거주지로 삼아 원의 잔여세력을 먼 곳에 보냄으로써 후환을 없애고자 하였다. 이에 1388년 12월 명은 북원을 정벌할 때 귀순해 온 達達親王 등 원의 皇族 80여 호를 제주에 보내어 정착하게 하였다. 다섯째,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몽골이 멸망한 후 군대의 일부는 명의 臣民이 되는 것을 반대하여 제주에 건너가 정착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제주에 건너온 몽골의 후손들은 조선후기까지도 제주에 거주하면서 본관을 ‘대원’이라 칭하였다.

2) 제주 성씨와 대원 본관

제주의 토착 성씨는 탐라국 개벽신화의 三神人이 유일하다. 즉, 태초에 제주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高乙那 · 良乙那¹¹⁾ · 夫乙那 삼신인이 모흥혈이라는 땅 속에서 태어나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제주지방과 관련된 읍지류의 성씨와 관련된 사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고려 태조 경에 성씨를 ‘良’에서 ‘梁’으로 고친 것은 서로音が 비슷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東文選』, 『星主高氏家傳』).

- ① 『世宗實錄地理志』 卷151, 全羅道 濟州牧.

土姓高梁夫.

- ②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 姓氏.

(本州)高良(良後改梁), 夫文(初寶城郡之福城縣人來婿于高氏其子孫有繼高氏爲王子者), 鄭金李文安玄咸楊(並屬縣), 金李朴林兪周趙宋鄭洪徐崔吳車池韓馬(並來), **趙李石肖姜鄭張宋周秦(元), 梁安姜對(雲南, 大明初平定雲南徙梁王家屬安置于州).**

- ③ 『耽羅志』(李元鎮, 1653년, 효종 4) 姓氏

本州高良(良後改梁)夫文(初寶城郡之福城縣人來婿于高氏其子孫有繼高氏爲王子者)鄭金李文安玄咸楊(並屬縣), 金李朴林兪周趙宋鄭洪徐崔吳車池韓馬黃白南牟許張任邊(並來), **趙李石肖姜康鄭張宋周秦(元), 梁安姜對(雲南, 大明初平定雲南徙梁王家屬安置于州).**

- ④ 『南宦博物』(李衡祥, 1704년) 誌姓

高良(後改爲梁)夫最先, 其後有文(寶城之福城人來婿于高有繼爲王子者)鄭金李文安玄咸楊者並屬本州之縣, 金李朴林兪周趙宋鄭洪徐崔吳車池韓馬者並自他來, **趙李石肖姜鄭張宋周秦者並屬于元牧馬時遺種也, 梁安姜對之屬于雲南者, 大明初平定雲南徙梁王家屬安置于州互相藤葛雖各有派別皆源於三姓云.**

- ⑤ 『濟州邑誌』(正祖年間)

『濟州邑誌』: 高良夫(三姓出自濟州良後改梁) 文鄭金李文安玄咸楊(並屬縣), 金李朴林兪周趙宋鄭洪徐崔吳車池韓馬黃白南牟許張任邊(並來), 趙佐石肖姜康張鄭宋周秦(並元), **安姜對(雲南人, 大明初梁王家屬安置于此).**

『大靜縣誌』: 高良夫(三姓出自濟州良後改梁) 文(福城)鄭金李文安玄咸楊

(並屬縣), 朴林俞周趙宋洪徐崔吳車池韓馬黃白南姜許張任邊柳權劉丁皇甫孔陸曹尹呂禹魏孫(陸來), **佐肖康姜秦(元人), 元安姜(雲南人)**.

『旌義縣誌』: 高良夫(三姓出自濟州良後改梁) 文鄭金李安玄咸梁(並屬縣), 金李朴林俞趙鄭宋洪徐崔吳車池韓馬黃白南牟許張任邊(並來), **趙石肖康姜鄭張宋周秦元安姜對(雲南人, 大明初梁王家屬安置于此)**.

⑥ 『濟州大靜旌義邑誌』(1793년)

高良(改梁)夫文鄭金李安玄咸楊朴林俞周趙宋洪徐崔吳車池韓黃白南牟許張任邊佐肖姜康秦孔秋奇皇甫具呂陸朱權尹元成裴孫丁沈盧劉柳千禹表田全曹郭申愼河.

⑦ 『耽羅誌草本』(李源祚, 憲宗年間) 「氏族」

高(按東史梁爲長高爲星主舊誌高爲星主梁爲王子夫爲徒上梁氏譜又謂梁爲星主夫爲王子其言不一有難的證盖以諸文蹟參考則厥初出地梁似爲長其後國高實爲主故達置條高後梁覽者詳之)良夫文(以高氏婿有繼高爲王者)鄭金李安玄咸楊朴林俞周趙宋洪徐崔吳車池韓白南黃牟許張任邊佐肖姜康秦孔秋奇皇甫具呂陸朱權尹元成裴孫丁沈盧劉柳千禹表田全曹郭申愼河魏賓對.

제주의 성씨는 토착성씨인 토성과 우리 나라의 다른 곳에서 제주로 들어온 來姓, 몽골에서 들어온 大元 성씨, 운남에서 들어온 雲南 성씨로 구분된다. 여기에 來姓은 다시 屬縣姓과 來姓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제주의 토착 성씨인 토성은 高·梁·夫로 탐라국 개벽신화 당시에 모흥혈에서湧出한 삼신인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유일하게 ‘제주’를 본관으로 삼고 있다. 다음으로 文씨인데, 보성군전남 북성현 사람으로 제주 고씨의 사위로 들어갔는데, 그 후손 중에는 고씨를 이어 王子가 된 자도 있었다. 흔히 高·姜·부 3성에 文씨를 더하여 제주 4姓으로 칭한다.

제주 외의 다른 지역에서 온 성씨를 보편적으로 來姓이라 말하는데, 몽골과 운남에서 온 성씨는 별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내성 중에는 속현성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다음 원 간섭기 및 명 건국 초에 운남 양양의 제주 유배와 관련하여 대원(몽골)과 운남에서 건너온 성씨가 존재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표 1> 제주의 성씨 구분

濟州 4姓		來姓		大元	雲南	資料
土姓(3姓)	高氏 시위	屬縣姓	來姓			
高·梁·夫						새종실록지리지
高·梁·夫	文	鄭·金·李· 文·安·玄· 咸·楊	金·李·朴·林·兪· 周·趙·宋·鄭·洪· 徐·崔·吳·車·池· 韓·馬	趙·李·石· 肖·姜·鄭· 張·宋·周·秦	梁·安· 姜·對	신증동국여지승람
高·梁·夫	文	鄭·金·李· 文·安·玄· 咸·楊	金·李·朴·林·兪· 周·趙·宋·鄭·洪· 徐·崔·吳·車·池· 韓·馬·黃·白·南· 牟·許·張·任·邊	趙·李·石· 肖·姜·康· 鄭·張·宋· 周·秦	梁·安· 姜·對	탐라지 (이원진)
高·梁·夫	文	鄭·金·李· 文·安·玄· 咸·楊	金·李·朴·林·兪· 周·趙·宋·鄭·洪· 徐·崔·吳·車·池· 韓·馬	趙·李·石· 肖·姜·鄭· 張·宋·周·秦	梁·安· 姜·對	남환박물 (이형상)
高·梁·夫	文	鄭·金·李·安·玄·咸·楊·朴·林·兪·周·趙·宋·洪·徐·崔·吳·車·池·韓·黃·白·南·牟·許·張·任·邊·佐·肖·姜·康·秦·孔·秋·奇·皇南·具·呂·睦·朱·權·尹·元·成·嬰·孫·丁·沈·盧·劉·柳·千·禹·表·田·全·曹·郭·申·慎·河				제주대정정의읍지 (1793년)
高·梁·夫	文	鄭·金·李·安·玄·咸·楊·朴·林·兪·周·趙·宋·洪·徐·崔·吳·車·池·韓·白·南·黃·牟·許·張·任·邊·佐·肖·姜·康·秦·孔·秋·奇·皇南·具·呂·睦·朱·權·尹·元·成·裴·孫·丁·沈·盧·劉·柳·千·禹·表·田·全·曹·郭·申·慎·河·魏·黃·對				탐라지초본 (이원조)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1530년경 제주의 내성은 鄭·金·李·文·安·玄·咸·楊·金·李·朴·林·兪·周·趙·宋·鄭·洪·徐·崔·吳·車·池·韓·馬에서 1653년경에 이르러서는 여기에 黃·白·南·牟·許·張·任·邊 등 8개의 성씨가 추가 되고 있다. 그리

고 140년 뒤인 1793년경에는 孔 · 秋 · 奇 · 皇甫 · 具 · 呂 · 睦 · 朱 · 權 · 尹 · 元 · 成 · 裴 · 孫 · 丁 · 沈 · 盧 · 劉 · 柳 · 千 · 禹 · 表 · 田 · 全 · 曺 · 郭 · 申 · 愼 · 河 등 29개 성씨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에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제주로 많은 성씨들이 유입되었음을 말해 준다.

한편 몽골의 후손임을 알 수 있는 성씨가 趙 · 李 · 石 · 肖 · 姜 · 鄭 · 張 · 宋 · 周 · 秦 등 10개 성씨를 기본으로 하여 康씨와 佐씨가 추가되는 반면에 石씨는 이탈되고 있다. 석씨가 대원 성씨에서 이탈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윤남에서 제주로 유입된 성씨는 梁 · 安 · 姜 · 對씨이다.

제주지역 내에서 다시 3읍 군현별로 성씨 분포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1780년대 작성된 『제주읍지』이다. <표 2>는 제주 3읍별 성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제주 3읍별 성씨 분포(1780년대)

구분 삼읍	濟州 4姓		來姓		大元	雲南
	土姓(3姓)	高氏 시위	屬縣姓	來姓		
제주목	高 · 良 · 夫	文	鄭 · 金 · 李 · 安 · 玄 · 咸 · 楊	金 · 李 · 朴 · 林 · 俞 · 周 · 趙 · 宋 · 鄭 · 洪 · 徐 · 崔 · 吳 · 車 · 池 · 韓 · 馬 · 黃 · 白 · 南 · 牟 · 許 · 張 · 任 · 邊	趙 · 佐 · 石 · 肖 · 姜 · 康 · 鄭 · 張 · 宋 · 周 · 秦	安 · 姜 · 對
대정현	高 · 良 · 夫	文	鄭 · 金 · 李 · 安 · 玄 · 咸 · 楊	朴 · 林 · 俞 · 周 · 趙 · 宋 · 洪 · 徐 · 崔 · 吳 · 車 · 池 · 韓 · 馬 · 黃 · 白 · 南 · 姜 · 許 · 張 · 任 · 邊 · 柳 · 權 · 劉 · 丁 · 皇甫 · 孔 · 睦 · 曹 · 尹 · 呂 · 禹 · 魏 · 孫	佐 · 肖 · 姜 · 康 · 秦	元 · 安 · 姜
정의현	高 · 良 · 夫	文	鄭 · 金 · 李 · 安 · 玄 · 咸 · 楊	金 · 李 · 朴 · 林 · 俞 · 趙 · 鄭 · 宋 · 洪 · 徐 · 崔 · 吳 · 車 · 池 · 韓 · 馬 · 黃 · 白 · 南 · 牟 · 許 · 張 · 任 · 邊	趙 · 石 · 肖 · 姜 · 康 · 鄭 · 張 · 宋 · 周 · 秦	元 · 安 · 姜 · 對

1780년경 3읍 성씨의 특징은 고 · 양 · 부 · 문의 제주 4성이나 속현성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제주목이나 정의현과는 달리 대정현에는 내성으로 柳 · 權 · 劉 · 丁 · 皇甫 · 孔 · 睦 · 曺 · 尹 · 呂 ·

禹·魏·孫씨가 추가되어 나타난다. 반면에 대원 성씨는 佐·肖·姜·康·秦씨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운남 양씨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운남 元씨가 새롭게 나타나 있다.

3. 「大元」 본관 家門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1) 호적중초의 대원 본관 실태

제주지역 호적중초¹²⁾에는 본관 명칭의 하나로 ‘大元’ 본관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제주가 몽골[元]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몽골에서 제주에 건너가 정착한 사람들의 후손이다. 몽골을 멸망시킨 明太祖는 제주에 정착한 몽골인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고 제주에 그냥 남겨두게 된다. 제주의 몽골 후손들은 제주 여인들과 혼인하는 등 점차 제주인으로 동화되어 나갔으나, 그들의 본관만은 19세기 중·후반까지 ‘대원’을 지속하면서 제주의 다른 본관과 차별하였다. 동성리·중문리·금물로리(사계리)·대포리·하모슬리·덕수리 등의 호적중초에서 ‘대원’ 본관 실태를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 호적중초의 ‘大元’ 본관 실태

연번	자료	연도	통-호	호주관계	지역	성명	본관
1	東城里 戶籍中草	1786	3-1	본인	內資寺奴 營使舍	佐世重	大元
2	東城里 戶籍中草	1786	6-1	처		婢	大元
3	中文里 戶籍中草	1786	2-3	본인	禮賓寺奴書員東伍	姜文周	大元

1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김동전, 2004 「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기초적 연구」, 『역사민속학』 19, 한국역사민속학회; 김동전, 2005 「조선후기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실태와 그 성격」, 『역사민속학』 20, 한국역사민속학회.

4	東城里 戶籍中草	1786	8-4	처		姜	大元
5	東城里 戶籍中草	1786	1-2	본인	內資寺奴 營紙匠	佐千弘	大元
6	東城里 戶籍中草	1786	2-5	본인	內資寺奴 營紙匠	佐千萬	大元
7	中文里 戶籍中草	1786	8-3	외조		姜渭賢	大元
8	東城里 戶籍中草	1786	18-4	처		姜	大元
9	今勿路里戶籍中草	1795	10-1	본인	校奴	姜道昌	大元
10	今勿路里戶籍中草	1795	10-4	처	寺奴	洪萬連	大元
11	今勿路里戶籍中草	1795	4-4	처		仁順府婢	大元
12	今勿路里戶籍中草	1795	3-2	본인	仁壽府奴 紙匠	姜順寶	大元
13	今勿路里戶籍中草	1795	3-1	처외조	私奴	姜同	大元
14	大浦里戶籍中草	1804	10-2	본인		姜仁敏	大元
15	下募瑟里戶籍中草	1807	1-2	본인	毛防軍	姜去卜	大元
16	今勿路里戶籍中草	1807	12-2	본인	群頭	姜德朱	大元
17	今勿路里戶籍中草	1807	1-1	본인	書員才落	姜奉朱	大元
18	下募瑟里戶籍中草	1807	1-1	외조	通政大夫	姜世弘	大元
19	大浦里戶籍中草	1810	14-4	외조	業武	姜弼文	大元
20	下募瑟里戶籍中草	1812	4-1	외조	書員	佐世好	大元
21	下募瑟里戶籍中草	1812	1-3	婦		姜召史	大元
22	大浦里戶籍中草	1813	13-4	본인	業武	姜斗興	大元
23	下募瑟里戶籍中草	1819	7-4	외조	將官	姜碩希	大元
24	德修里 戶籍中草	1825	17-1	본인	募軍	姜日才	大元
25	大浦里戶籍中草	1828	7-5	본인	鎭撫	姜榮秀*	大元
26	大浦里戶籍中草	1828	14-5	외조	鎭撫	姜渭興	大元
27	大浦里戶籍中草	1828	7-5	외조	記官	姜道逸	大元
28	下募瑟里戶籍中草	1831	7-1	처		姜召史	大元
29	德修里 戶籍中草	1834	2-5	외조	書員	좌삼성	大元
30	大浦里戶籍中草	1837	13-3	본인	假率	姜景孝	大元
31	大浦里戶籍中草	1840	19-4	본인		徐召史	大元
32	大浦里戶籍中草	1846	20-1	외조	學生	姜仁弼	大元
33	下募瑟里戶籍中草	1849	9-1	외조	業武	車己成	大元
34	下募瑟里戶籍中草	1849	7-1	외조	書員	姜得根	大元
35	德修里 戶籍中草	1852	13-5	외조	良人	좌중택	大元
36	德修里 戶籍中草	1852	12-3	외조	業武	좌원영	大元

〈표 3〉에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대원 본관을 칭하는 성씨로 佐·姜·洪·徐·車氏 등이 나타난다. 제주의 읍지류에 나타나는 성씨 가운데 대원 본관을 칭한 성씨는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趙·李·石·肖·姜·鄭·張·宋·周·秦 등 10개 성씨 외에 康과 佐氏가 추가되어 12개였다. 그러나 읍지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성씨인 洪·徐·車氏 등 3개 성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원 본관 성씨는 趙·李·石·肖·姜·鄭·張·宋·周·秦 등 10개 성씨와 康·佐·洪·徐·車氏 등 모두 15개였다. 이는 더 많은 호적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몇 개의 성씨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운남을 본관으로 하는 梁·安·姜·對의 성씨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운남 본관은 대원 본관 보다 일찍 제주지역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운남 본관은 대원 본관에 비하여 수적으로도 열세이기도 했지만, 운남왕국이 주원장에 의해 멸망하면서 완전히 중국에 편입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미 사라져버린 운남왕국을 의미하는 ‘운남’을 본관으로 내세울 필요성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반면에 몽골은 명을 건국하는 주원장에게 쫓겨 북쪽으로 이주하여 복원을 칭하면서 유목민 국가로 1635년까지 존속하다가 청에 멸망하였다. 청은 몽골분열정책으로 내몽골과 외몽골로 분리하여 통치함으로써 몽골의 통합은 반대하였으나 몽골제국인 ‘大元’이라는 유습은 간직하고 있었다. 제주지역 호적중초에 대원 본관을 유지했던 몽골 후손들은 몽골제국의 부활을 여망했던 제주 정착인으로서의 마지막 후예들이었다.

둘째, 대원 본관의 소멸시기이다. 이는 생존자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외조인 경우는 대부분 이미 사망한 경우라도 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로서는 1849년 여성호주인 서조이〔徐召乂〕가 대포리 19통 4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1837년 대포리 13통 3호에 거주하던 강경효 역시 1849년까지 대원 본관을 유지하고 있었다.¹³⁾ 그러나 1850년 전후에 대원 본관도 제주지역에서 사라져 나갔다. 대포리 호적중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1828년까지는 대원 본관을 기재하다가 1831년부터는 대원 본관이 진주 강씨로 본관이 변경되고 있다.¹⁴⁾ 이는 이 시기를 전후해서 대원 본관 성씨들이 본관을 대원에서 진주 등으로 변경시켜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제주지역의 족보 작성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19세기 제주지역에 유교이념이 파급되어 문중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었으며, 문중의 일원으로 편찬되는 족보 등에 이름 석자를 올리려는 대원 본관 성씨들이 나타나면서 대원 본관은 제주지역에서 서서히 사라져 나갔다. 대원 강씨와 대원 좌씨가 대원 본관 중에서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제주 정착 몽골 후손들이었다. 셋째, 대원 본관 36명을 성씨별로 분류해 보면, 姜氏가 24명으로 佐氏가 7명, 洪氏·車氏·徐氏가 각 1명, 미상 2명이다. 강씨가 다른 성씨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대원 본관 戶主와 4조의 職役

호적증초에서 확인된 대원 본관 호주는 모두 13사례였다. 동성리 거주가 3명, 금물로리 거주가 4명, 대포리 거주가 4명, 중문리 거주가 1명, 하모슬리 거주가 1명이다. 이들의 직역과 4조의 직역을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표 4> 대원 본관 호주와 4조의 직역

번호	자료	연도	통호	호주의 직역	성명	4조의 직역 (부·조·증·조·외·조)
1	東城里 戶籍中草	1786	3-1	內資寺奴 營使令	佐世重	인순부노 - 정병 - 정병 - 노직통정
2	中文里 戶籍中草	1786	2-3	禮賓寺奴書員東伍	姜文周	서원 - 업무 - 유향별감 - 寺奴

13) 『대포리호적증초』(대포마을회관 소장), 1849년 13통 3호.

14) 『대포리호적증초』 1828년 7통 5호.

3	東城里 戶籍中草	1786	1-2	內資寺奴 營紙匠	佐千弘	寺奴 - 정병 - 정병 - 不知
4	東城里 戶籍中草	1786	2-5	內資寺奴 營紙匠	佐千萬	寺奴 - 정병 - 정병 - 不知
5	今勿路里戶籍中草	1795	10-1	校奴	姜道昌	寺奴 - 不知 - 不知 - 私奴
6	今勿路里戶籍中草	1795	3-2	仁壽府奴 紙匠	姜順寶	서원 - 寺奴 - 寺奴가선대부
7	大浦里戶籍中草	1804	10-2		姜仁敏	서원 - 업무 - 업무 - 진무
8	下攀瑟里戶籍中草	1807	1-2	毛防軍	姜去卜	격군 - 노직통정 - 시노 - 격군
9	今勿路里戶籍中草	1807	12-2	群頭	姜德朱	서원 - 서원 - 노직가선대부 - 진무
10	今勿路里戶籍中草	1807	1-1	書員才落	姜奉朱	서원 - 서원 - 가선대부 - 업무
11	大浦里戶籍中草	1813	13-4	業武	姜斗興	기관 - 업무 - 업무 - 진무
12	大浦里戶籍中草	1828	7-5	鑣撫	姜榮秀	기관 - 업무 - 업무 - 진무
13	大浦里戶籍中草	1837	13-3	假率	姜景孝	성장 - 기관 - 업무 - 업무

위 표에서와 같이 대원 본관 호주의 직역은 1801년 공노비 해방 이전에는 공노비호가 5호이며, 校奴인 관노비가 1호였다. 대부분 공노비로 신분적으로 매우 열악하였음을 보여 준다. 1801년 이후는 모방군·군두·서원·업무·진무·가솔 등 모두 軍役과 관련된 직역을 담당하였다. 통정대부나 가선대부 등의 직책리 간혹 보이지만 이는 老職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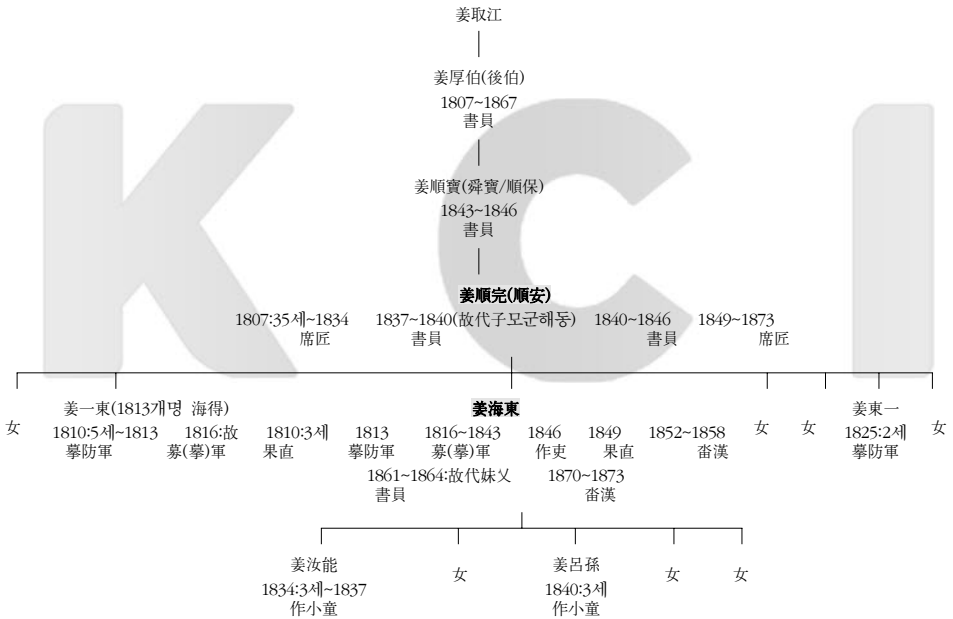
대원 본관 호주 4조(부·조·증조·외조)의 직역 변동은 1801년 이전이 仁順府奴 - 正兵 - 正兵 - 老職通政, 書員 - 業武 - 儒鄉別監 - 寺奴, 寺奴 - 正兵 - 正兵 - 不知, 寺奴 - 正兵 - 正兵 - 不知, 寺奴 - 不知 - 不知 - 私奴, 書員 - 寺奴 - 寺奴가선대부 등으로 4조만 놓고 보더라도 직역변동이 제한되어 있어 그들의 신분상승은 제약받고 있었다. 중문리 거주 강문주의 경우에 4조가 서원 - 업무 - 유향별감 - 시노로 되어 있어, 증조가 유향별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향별감은 해당 소속 군현의 유품관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그의 자식이나 손자의 직역이 신분변동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직역 상승은 아니었다. 18세기 전후 대원 본

관 호주의 직역이나 호주 4조의 직역변동을 통해 볼 때, 그리고 18세기 이전 제주 주민의 40% 가까이 공노비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대원 본관 가문들이 제주지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집단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몽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버리지 않고 호적 작성시 그들의 본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몽골 후손들은 제주가 몽골의 영향 하에 있던 13~14세기에 제주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제주 지역 사회에는 ‘胡 倻 앞인가 기어다니게’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그들의 횡포는 심하였다. 이에 맞서 제주인들은 몽골인들을 욕하는 소리로 ‘몽곤(몽골) 놈의 자식’, ‘□으로 만든 몽곤 놈의 자식’ 등의 말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1367년 2만 5천 여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목호 토벌에 나선 최영과 친명 관계에 있던 조선의 강력한 중앙집권책의 결과, 제주 지역에서의 대원 본관 세력들은 그 위상이 점차 약화되어 나갔다. 특히, 조선 초·중기에 중앙정치인들의 제주 유배와 그들의 후손에 의한 제주입도조의 확대는 새로운 향촌 주도세력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 제주지역 향안입록자들 가운데 조선시대 제주에 새로 들어온 성씨들인 소위 ‘來姓’이 대원 본관 성씨를 대체해 나갔다. 그리고 몽골 후손들은 군사적 측면의 직역을 주로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 본관 가문들이 19세기 중·후반까지 대원 본관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속시켜 나갔다는 점은 제주 역사의 한 특성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대원 본관 가문의 가계변동

대원 본관을 칭하였던 강순보, 강도창, 강봉주와 강덕주 형제의 가계를 중심으로 대원 본관 가문의 사회적 지위와 그 변화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즉, 가계변동에서 가계 구성원의 구체적인 직역변동을 통해 가계의 위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 姜順寶의 가계변동

姜順寶는 1795년 금물로리 3통 2호에 거주하였는데, 직역은 紙匠으로 인수부에 소속된 공노비였다. 처 역시 인수부 소속의 공노비였다. 강순보의 부·조·증조의 직역은 서원-寺奴-寺奴, 처의 4조 직역은 寺奴-官奴-寺奴-私奴로 나타나 매우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¹⁵⁾ 1810년에는 그의 아들 강순완이 호주를 승계하였으나, 그의 직역은 席匠으로 38세였다. 57세의 어머니 金女와 처 25세 金女, 1녀 2남의 자식과 함께 모두 5명으로 구성된 小戶로 편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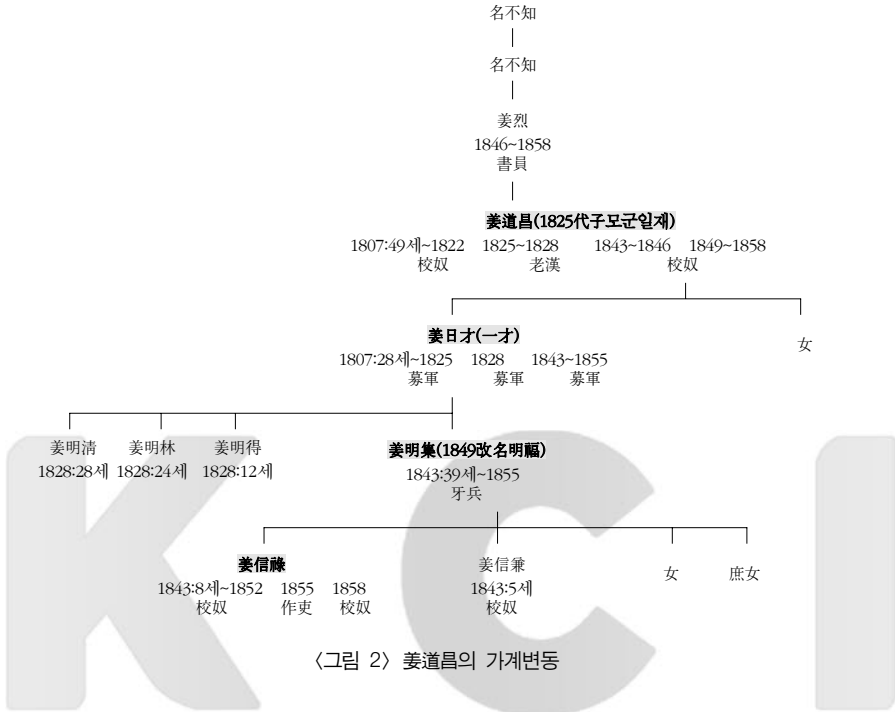
아들 一東은 모슬진 소속의 防軍, 海東은 관아 소속의 과수원지기인 果直의 직역을 가지고 있었다.¹⁶⁾ 석장·방군·과직 모두 신분적으로 매우 열악한 직역이다. 특히, 강순보의 아들들이 담당하였던 방군·과직·답한의 직역은 6고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주 사람들이 감당하기 가장 어려워하던 역들이었다. 처의 칭호도 父-女-父를 넘나들고 있어 사회 신분적 지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1840년 강순완이 사망하고 대신에 아들 해동이 33세의 나이로 호주를 승계하였는데, 본관은 ‘大完’이라 되어 있으나 ‘大元’의 잘못된 기재이다. 1864년 호적에는 강해동 대신에 妹父가 50세의 나이로 호주를 승계하였다. 남동생에게서 누나가 이어 받는 여성 호주의 승계 방식의 하나를 이해할 수 있다. 호주 본인과 여조카 3명으로 모두 여성 4명으로만 구성된 호였다.¹⁷⁾ 1873년 호적중초에서는 그의 증손녀 강조이(37세)가 단독호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전히 ‘대원’ 본관을 칭하고 있다.¹⁸⁾

15) 『今勿路里戶籍中草』 1795년 3통 2호.

16) 『今勿路里戶籍中草』 1810년 2통 5호.

17) 『今勿路里戶籍中草』 1864년 5통 3호.

18) 『今勿路里戶籍中草』 1873년 5통 3호.



〈그림 2〉 姜道昌의 가계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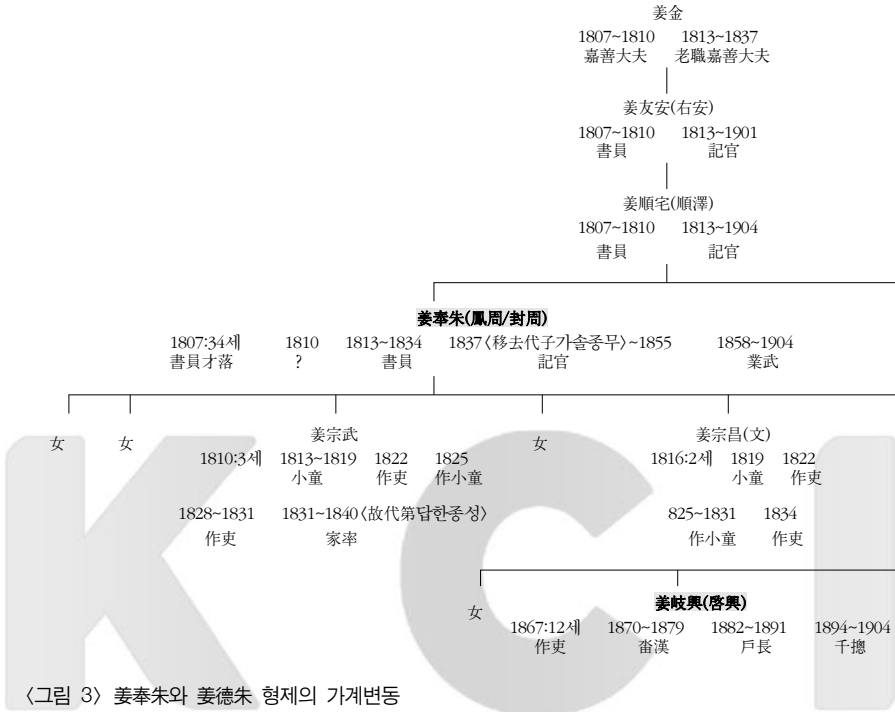
강도창은 1795년 금물로리 10통 1호에 거주하는 부부 교노비였다. 그의 4조는 寺奴 - 不知 - 不知 - 私奴로 조와 증조의 내력은 물론 처의 4조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가계가 열악하였다.¹⁹⁾ 1813년에 그는 금물로리 15통 3호에 편성되었는데, 직역은 교노(53세)였으며, 그의 처 순덕(50세)은 교비였다. 아들 이재(34세)는 지역이 募軍이며, 딸(14세)을 포함하여 남 2, 여 2명으로 구성된 호이다. 그런데 1810년 호적자료에는 강도창이가 호주임에도 불구하고 본관 명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인 모략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1813년 호적에는 본관을 대원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²⁰⁾

19) 『今勿路里戶籍中草』 1795년 10통 1호.

그리고 1822년 14통 4호에 편성된 강도창은 본관을 ‘大原’으로 잘못 표기하였는데, 음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825년에 강도창은 금물 로리의 이웃 마을인 덕수리 호적에 17통 1호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828년 호적까지 등재되고 그 이후에는 가족 모두 사라졌다가 1843년에 4통 3호에서 강일재의 아들 강명집의 주호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 강명집의 본관은 대원이라 표기되어 있다. 1855년 이후부터는 본관을 대원에서 진주로 변경하여 기록하였다. 1855년 강명복의 妻 강예(41세)가 등장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順完으로 기록된다. 이는 <그림 1>에서 소개한 대원본관 강순완의 딸로 추정된다. 1861년 이후에는 호적에서 이 집안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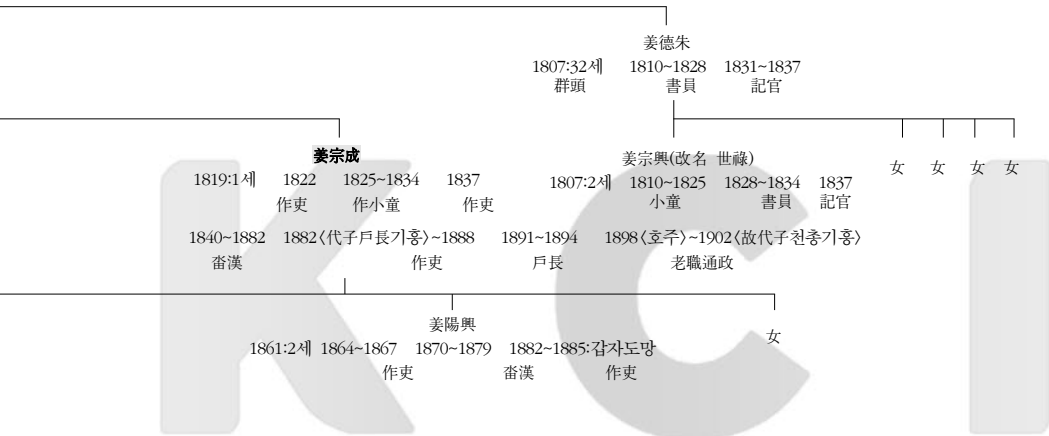
강도창의 가계변동에서 강도창 자신이 교노 신분에서 벗어나질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일재는 모군, 그리고 손자 명집은 아병, 증손자 신록과 신점은 교노 신분이었다. 1855년에 본관을 대원에서 진주로 바꾸는 데는 가능했지만, 실질적인 가문의 신분변동은 불가능하였다. 6고역의 아병 직역과 교노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음을 의미한다.

20) 『今勿路里戶籍中草』 1810년 8통 1호; 1813년 15통 3호.



대원 본관이었던 강순택은 奉朱와 德朱 두 아들을 두었다. 1807년 호적에서 강봉주(34세)는 금물로리 1동 1호에서 서원 직역으로 처 임조이(29세)와 함께 두 딸(8, 2)을 두고, 妻母 김조이(53세)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남 1명, 여자 4명으로 小戶로 편성되었다. 강덕주(32세)는 12동 2호에 群頭 직역으로 어머니 강조이(64세), 처 金乂(28세)와 함께 아들(2세)과 여동생(23세)을 두고 있었다.

1819년 호적자료에는 강봉주의 次子 강중창이 강중문으로 개명을 하였고, 1828년 호적자료에서는 강봉주와 강덕주의 본관을 大元에서 晉州로 고친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식년부터는 본적을 모두 진주라 쓰고 있다.²¹⁾ 즉, 이 가문은 1828년경부터 대원 본관을 버리고 진주



강씨로 본관을 취하였음을 호적자료에서 확인된다.

강봉주는 생존시에 인수부노 지인 → 인수부노 의생 → 의생 → 서원 → 지장 → 서원의 직역을 갖고 있었고, 1840년 금물로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서 기관을 칭하였다. 사후에는 업무로 추증되었다.²²⁾ 1837년 강봉주는 둘째 아들 종창(문)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거하면서 호주는 큰 아들 종무가 승계하였다. 그러나 종무가 1840년 사망하자, 동생 종성이 호주를 이었다. 당시 종성의 직역은 작리에서 답한으로 변동되어 그

21) 『今勿路里戶籍中草』 1807년 1통 1호, 12통 2호; 1828년 2통 2호, 7통 5호.

22) 『沙溪里(今勿路里)戶籍中草』 1840년 7통 5호, 1861년 7통 5호.

후 평생 답한의 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심지어 그의 아들 岐興과 陽興도 답한직을 세습하고 있었다.²³⁾ 1882년 기흥은 호장으로 신분이 상승되어 이미 고인이 된 아버지의 직역을 작리로 모칭하였으나, 관아에서는 적색으로 답한이라 정정해 놓고 있다.²⁴⁾ 양흥은 1885년에 육지로 도망을 선택하였다.²⁵⁾

이상으로 대원 본관을 칭하였던 강순보, 강도창, 강봉주와 강덕주 형제의 가계도를 중심으로 그 변동을 살펴보았다. 강봉주와 강덕주 형제는 1828년, 강도창은 1855년에 본관을 대원에서 진주로 고쳐 기재하였다. 즉, 대원 본관을 버리고 진주를 본관으로 취하였다. 그러나 강순보의 가문은 19세기 후반까지 대원 본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3가문 모두 가계의 직역변동을 살펴보았지만, 뚜렷한 신분 상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모방군, 과직, 답한, 아병, 교노, 군두, 작리 등의 직역을 칭하고 있어 열악한 사회적 상태에 처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원에서 진주로 본관을 고치는 것도 진주강씨 가문이라는 영향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朱元璋에 의해 명나라가 흥기하면서 이에 위협을 느낀 원의 惠宗 즉, 순제는 사람들을 탐라(제주)로 보내 피난궁전을 건립하려고 하였다. 원 황실의 피난지로 제주를 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1368년 7월 28일 원 혜종은 측근들과 북으로 도망함으로써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23) 김동전, 1993, 『18·19세기 답한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역사민속학』 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이론과실천, 81쪽.

24) 『沙溪里(今勿路里)戶籍中草』1882년 7통 5호.

25) 『沙溪里(今勿路里)戶籍中草』1885년 7통 5호.

몽골이 목수 元世 등에 의해 추진되던 제주의 피난궁전 건축은 1369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주원장은 전왕조의 대를 끊을 수 없어 1382년 운남을 평정하고 梁王家屬을 제주에 안치하였다. 1388년에는 원에서 귀순한 達達親王 등 80여 호가 거주할 주택을 탐라에 마련케 하였다. 나아가 1392년 양왕 자손 愛顔帖木兒 등 4명을 제주에 안치하여 拍拍太子 등과 함께 거주하게 하였다. 백백태자는 1404년(태종 4) 10월에 사망하였으며, 백백태자의 부인은 1444년(세종 26)까지 생존하다가 사망하였다. 그러나 많은 몽골의 후손들은 제주에 잔존하여 제주인들과 동화되면서 삶을 유지하여 나갔다.

조선후기 제주지역 호적증초에서 확인되는 대원 본관은 姜·車·佐·洪·徐씨로 나타난다.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점차 ‘대원’ 본관은 사라지지만, 일부의 성씨는 19세기 후반까지 ‘대원’ 본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문 분석을 통해서 볼 때, ‘대원’ 본관을 지속해 가는 가문의 경우에 校奴, 番漢, 牙兵, 募軍, 果直, 群頭, 席匠 등의 職役을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사회적 지위 상승은 쉽지 않았다. 다만 대원 본관들 가운데 일부의 가문은 ‘大元姜氏’에서 ‘晋州姜氏’로 본관을 바꾸는 등 ‘대원’ 본관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제주사회에 마지막 남아 있던 대원 본관 가문들이 19세기 제주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삶의 한 방식이었다.

[참고문헌]

1. 자료

- 『高麗史』
『元朝秘史』, 『四部叢刊』 三編本
『元史』,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1976
『明史』,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1974
『元高麗紀事』, 廣倉學寤叢書本
『新增東國輿地勝覽』
『東文選』(太學社 影印本)
『東城里 戶籍中草』
『中文里 戶籍中草』
『下摹瑟里 戶籍中草』
『大浦里 戶籍中草』
『濟州大靜縣德修里戶籍中草』 I~IV(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5)
『濟州大靜縣沙溪里戶籍中草』 I~VI(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6~1998)
『耽羅志』(李元鎮, 1653년, 효종 4)
『耽羅巡歷圖·南宦博物』(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濟州大靜旌義邑誌』, 奎章閣圖書 17436
『濟州邑誌』, 奎章閣圖書 10796
『邑誌:六濟州道』(아세아문화사, 1983)
『耽羅誌草本』(李源祚,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

2. 연구서

- 고창석, 2007, 『제주역사연구』, 도서출판 세림
김동진, 1995, 『18·19세기 제주도의 신분구조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김순자, 1999, 『麗末鮮初 對元·明關係史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백승중, 1996,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송준호, 1987,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이준구, 1993, 『조선후기신분직역변동연구』, 일조각

임학성, 2000, 『17·18세기 단성지역 주민의 신분변동에 관한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허원영, 2005, 『19세기 제주도의 호구와 부세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3. 연구논문

강영봉, 1996, 「제주도와 몽골」, 한·몽골교류 천년, 한·몽골교류협회

岡田英弘, 1958, 「元順帝と耽羅島」, 『亞細亞文化研究論叢』, 國際基督教大學

高昌錫, 1984, 「元麗와 耽羅와의 關係」, 『濟州大論文集』 17, 제주대학교

_____, 1985, 「元明交替期の 濟州道 - 牧胡亂을 中心으로」, 『耽羅文化』 4,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高昌錫, 1985, 「元代の 濟州島牧場」, 『濟州史學』 창간호, 제주대학교 사학과

高昌錫, 1985, 「元明交替期の 濟州島 - 牧胡亂을 中心으로 -」, 『耽羅文化』 4,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高昌錫, 1998, 「“元高麗紀事” 耽羅關係記事의 檢討」, 『慶北史學』 21, 경북사학회

김동전, 1993, 「18·19세기 답한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역사민속학』 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이론과실천

_____, 1995, 「朝鮮後期 濟州 大靜縣 鄕吏層의 身分變動」, 『史學志』 제28집, 단국대학교 사학회

_____, 1995, 「朝鮮後期 濟州島 住民의 身分構造와 그 推移」, 『國史館論叢』 제65집,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00, 「해제」, 『濟州大靜縣下摹瑟里戶籍中草(Ⅰ)』,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_____, 2004, 「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기초적 연구」, 『역사민속학』 19, 한국역사민속학회

_____, 2005, 「조선후기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실태와 그 성격」, 『역사민속학』 20, 한국역사민속학회

에르덴 바타르, 1998, 「제주도의 칭기스칸 후예들에 관하여」, 『탐라와 몽골: 교류의 역사와 문화』,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요지,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윤용혁, 2009, 「오키나와 출토의 고려 기와와 삼별초」, 『한국사연구』 147, 한국사연구회
- 주채혁, 1974, 「高麗内地의 達魯花赤 置廢에 관한 小考」, 『청대사림』 1
- _____, 1989, 「몽골 - 고려사 연구의 재검토 - 몽골 - 고려 전쟁사 연구의 시각 문제」, 『애산학보』 8
- _____, 1989, 「몽골 - 고려사 연구의 재검토 - 몽골 - 고려사의 성격 문제」, 『국사관논총』 8
- 池内宏, 1963, 「元の世祖と耽羅島」, 『滿鮮史研究中世』 3, 吉川弘文館
- 陳祝三, 1983, 「蒙元和濟州馬」, 『中韓關係史國際研討論會文集』
- 許容範 1998, 「몽골과 濟州의 血脈 추적: 칭기스칸의 후손들이 600여 년을 제주도에서 살아 왔다」, 『월간조선』 1998년 10월호 조선일보사 408-522쪽
- 참조

The social position and changes of mongolia posterity who were reside Jeju in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The case analysis of Bongwan(family origin) ‘daewyon’ listed in Hojeokjungcho –

Kim, Dong-Jun*

Jeju island was under the direct and indirect reign of Yüan for over 100 years from 1273 A.D. (Wonjong 14) to 1374 A.D. (King Kongmin 23). During this period, some people of Yüan established in Jeju island as a ruler, a soldier, a herder, and an exile. Their descendants called their places of origin 'Daewon' (Great Yüan). In the journals of Jeju town, we can recognize some last names such as Jo (趙), Lee (李), Seok (石), Cho (肖), Kang (姜), Jung (鄭), Jang (張), Song (宋), Ju (周), Jin (秦). I examined the last names which has their origin places as ‘Daewon’ in the family registers of Jeju of late Chosun Dynasty. As a result, some last names such as Cha (車), Kang (康), Jao (佐) were added. In the 19th century, the origin places of Daewon gradually disappeared, but until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some last names maintained their origin places of Daewon.

In light of the analysis of some family clans which continued to keep their origin places of Daewon, those family clans assumed the positions of Kyono (校奴), Daphan (番漢), Abyoung (牙兵), Mokun

* Prof. Jeju Nati Univ

(募軍), Gaojik (果直), Kundu (群頭), Seokjang (席匠), etc. and had difficulty in elevating their social status. Some of the families changed their origin places of Daewon into Jinju Kang (晉州姜氏) and tried to throw away their origin places of Daewon. This means that even in the 19th century the last names, which has the origin places of Daewon, were low in social standing.

[Key word] Jeju island, Daewon, Jinju Kang, Hojeokjungcho, Mongolia, Bongwan(family origin)

